

용언어간 ‘심-’(植)의 방언학적 연구

-영암 지역어를 중심으로-

이진숙 (전남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어간 ‘심-’의 방언학적 분석 |
| 2. 어간 ‘심-’의 형태소 분석 | 5. 결론 |
| 3. 어간 ‘심-’의 사회적 변인에 따른
실현양상 | |

국문초록

이 글은 인구가동이 적은 농촌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언어간 ‘심-’(植)의 실현양상을 조사하여 방언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체 구성원간 언어사용에서 사회적 변인인 세대별·성별 차이를 분석하여 그것이 언어변이와 어떤 의미관계를 가지는지 방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植’을 뜻하는 어간은 ‘심-의시므-’로 교체를 하는 불규칙 어간이었으나 표준어는 어간 ‘심-’으로 단일화되었다. 그러나 영암 지역어는 표준어와 달리 ‘송구-, 싱구-, 싱기-, 숲-, 수무-, 심-’ 등 다양한 변이형으로 나타났다. 한 언어집단 내에서 동일 의미로 왜 이렇게 많은 변이형들이 쓰이고 있고, 그 변이요인은 무엇인지 고찰하여 앞으로 영암 지역어에서 어떤 변이형이 주요 어간으로 쓰일 것인지 그 흐름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영암 지역에서 어간 ‘심-’의 변이형은 세대별·성별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세대별에서 70대 이상은 어간 ‘송구-, 심-’이 사용되고, 60대 이하에서는 어간

‘심-, 숨-’이 사용되었다. 성별에서는 70대 이상의 경우 여성화자는 어간 ‘송구-’를 남성화자는 어간 ‘심-’을 사용하였다. 60대 이하의 경우 여성화자는 어간 ‘심-’을 남성화자는 어간 ‘숨-’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영암 지역어는 세대교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植’을 뜻하는 어간은 ‘숨-, 심-’이 되고 이들 어간은 성별의 차이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제어: 영암 지역어, 사회적 변인, 세대별·성별 요인, 변이형, 어간 ‘심-’

1. 서론

이 글은 인구이동이 적은 농촌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언어간 ‘심-’(植)의 실현양상을 조사하여 방언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암지역 내 구성원간 언어사용에서 사회적 변인인 세대별·성별 차이를 분석하여 그것은 언어변이와 어떤 의미관계에 있고, 미래에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흐름을 예측하고자 한다. 아울러 변이형에 대한 분포를 언어지도로 나타내어 어간 ‘심-’에 대한 사회적 변인을 통하여 지역적 변이까지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¹⁾

연구 대상어는 영암 지역어이다. 오늘날 농촌사회는 교통의 발달로 도시와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매스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사회적 정보를 시간적·공간적 장애 없이 접하게 되면서 언어적 환경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그 결과 방언과 표준어가 공존하여 쓰이는가 하면, 방언의 표준어 접

1) 영암군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언어간 ‘심-’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관찰하는데 언어지리학적·사회언어학적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전통방언학적 관점에 사회방언학적 관점이 가미된 논리라 할 것이다.

축에 의한 언어변이도 관찰된다. 영암 지역어의 경우 ‘植’을 뜻하는 어간은 ‘송구-, 싱구-, 싱기-, 숲-, 수무-, 심-’ 등 다양한 변이형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이처럼 한 언어공동체에서 같은 의미표현을 놓고 형태를 달리하여 실현되는 등 다양한 언어 변종이 발생한다는 것은 언어내적인 요인 외에도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하였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 언어집단 내에서 동일 의미로 왜 이렇게 많은 변이형들이 쓰이고 있고, 그 변이요인은 무엇인지 사회적 변인을 고찰하여 나아가서는 영암 지역어의 언어변화에 대한 흐름을 예측하고자 한다.²⁾

1.1. 조사 및 제보자

이 글에서 사용된 방언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직접 수집된 것이다. 조사지역은 10개 읍·면이다.³⁾ 자료조사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 하였다.⁴⁾

-
- 2) 어떤 언어변화가 일어날 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연령차는 연령대별로 그 연령대에서 적절한 말을 씀으로써 연령대별로 언어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연령대에서 쓰이던 어형이 다른 연령대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반대로 어떤 연령대에서는 쓰이지 않던 어형이 다른 연령대에서는 쓰임으로써 언어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차에 의한 언어차이는 언어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강현석 외 2014:108)
 - 3) 영암의 행정구역은 2개 읍과 9개 면으로 되어 있다. 영암읍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지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 평생 농업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9개면과 동질적인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삼호읍은 영암군의 11개 읍·면 중에서 도시화·상업화·산업화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그런 만큼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직업에 따라 언어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한 공동체에서 변이양상으로 나타나는 어형에 대한 세대별·성별 비교연구를 통하여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직업군이 다른 구성원이 모인 삼호읍은 조사지역에서 제외를 하였다. 그리고 영암의 행정구역도와 지리·지형적 특징은 지면 관계상 4장에 제시된 언어지도 및 그 결과에 따른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4) 오늘날 농촌사회에서 마을회관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지 역할 뿐 아니라 노인정이 없는 마을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해

다만 제보자에 빈칸이 생긴 경우 마을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조사를 하였다.⁵⁾

조사방법은 대화 관찰과 질문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대화 관찰은 일대다 방식을 취하였는데 어간 ‘심-’의 행위와 관련된 농작물 ‘깨, 콩, 팥, 고추, 어린모’ 등을 제시한 다음 모종시기·방법 등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 어간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대화관찰에서 확인된 어간을 중심으로 특정한 어미와 결합하는 다양한 교체환경을 일대일 질문으로 확인하였다.

제보자는 세대별로 70대 이상과 60대 이하로 나누었고, 각 층위에서 남성 2명 여성 2명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변수인 세대의 층위를 좀 더 세분화하지 않고 두 부류로 나눈 것은, 현재 농촌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마을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70세 이상의 슈퍼 고령마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⁶⁾ 이를 고려하다보니 세대별에 따른 제보자는 70대 이상과 60대 이하로 한정 있게 되었다. 또한 한 마을에서 제보자가 빈칸인 경우 이웃마을로 확대하였다. 제보자 및 조사지역 정보는 다음과 같다.

결하는 등 마을 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5) 자료 수집은 2015년 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이다.
- 6) 사회적 연령은 다른 사회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언어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변화 요인의 또 다른 기준이 된다.(강현석 외 2014:18~19) 그런데 이 글은 40대 이하의 청·장년 세대는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50대는 60대와 같이 묶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세대 구분과도 거리가 있다. 60대를 50대와 하나로 묶어서 70대 이상 세대와 나누어 구분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조사지역에서 50대 이하 남·여 제보자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둘째 60대는 50대와 비슷한 변이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면서 한편으로 60대는 70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농촌사회에서 70대 이상과 60대 이하 하는 각주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지배에 의해 많은 차이를 보인다. 넓게 보면 70대 이후 세대와 60대 이하 세대는 부모와 자식 세대이기도 하다.

조사지역	연령대	성별	성명	조사지역	연령대	성별	성명
영암읍 장암리	70대 이상	남	문정업	시종면 만수리	70대 이상	남	최남주
			문영덕				최형수
		여	이복순			여	손춘자
			박애자				김용해
	60대 이하	남	이 장		60대 이하	남	김현식
			문준상				김성옥
여	김정숙	여	문인향				
	양월십		장영숙				
도포면 수산리 당산리	70대 이상	남	해상기	서호면 금강리 성재리	70대 이상	남	이갑종
			김영동				오세민
		여	김평순			여	김남례
			해상기 妻				박동례
	60대 이하	남	박옥선		60대 이하	남	박생수
			손옥봉				최병철
여	곽양십	여	강점순				
	박옥선 妻		곽순자				
신북면 용산리 모사리	70대 이상	남	유심일	군서면 양장리	70대 이상	남	김은오
			유준걸				박영대
		여	민삼례			여	향촌덕
			정영애				남산덕
	60대 이하	남	최영환		60대 이하	남	박봉옥
			최대현				양승철
여	김도녀	여	윤영심				
	김경자		최순덕				
금정면 부월리 아천리 연소리	70대 이상	남	이한진	학산면 신덕리 용소리	70대 이상	남	서정봉
			유재관				허 연
		여	김야님			여	정영자
			김재순				신맹심
	60대 이하	남	김남주		60대 이하	남	장성길
			이건배				최홍주
여	양귀님	여	엄소숙				
	이춘순		민성숙				
덕진면 장동리	70대 이상	남	최규옥	미암면 춘동리	70대 이상	남	박영대
			이효태				양금혜
		여	서정자			여	김점심

영보리	60대 이하	남	서남택	60대 이하	남	김진순
			장원기			이계화
			김현선			양승용
		여	이장(장동)		여	이연순
			최송자			최권례

1.2. 선행연구

전남방언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방언연구의 목적에는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⁷⁾ 언어 변화의 방향에 대한 예측 연구도 한 예에 속한다. 강희숙(1993)은 전남 장흥지역에서의 p-, t-, s- 불규칙용언 어간에서 보여주는 변이형을 세대·성별과 직업군을 나누어 출현 빈도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젊은층 화자에서 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성화자일 경우 표준변이형인 불규칙활용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희숙(1994)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유기음화, 체언 어간말 자음의 마찰음화, 움라우트 등의 음운현상으로 확장하여 세대별·성별 사회계층이 사회언어학적 변항들과 어떠한 체계적 공동변이를 형성하게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형식의 언어변이형들은 화자의 사회적 신분이라는 사회언어학적 변항과의 공기현상으로서 출현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언어변이형들의 공시적 분포는 젊은층의 경우 표준어의 영향력에 의하여 전통적 방언형들이 표준변이형으로 대체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아 표준변이형이 언어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요인에 따른 계량적 분석 외에 지리적 분포, 언어지도를 작성하여 제시하여 기존의 연구방법과 차별을 두었다. 이러한 전통방언학적인 관점에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이 가미된 연구는 한 언어의 변화 방향은 물론이요, 영암 지역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준다 하겠다. 뿐만 아니

7) 방언연구의 목적은 크게 통시적인 언어 변화의 이해, 공시적인 언어 체계의 이해, 미래의 언어 변화의 방향에 대한 예측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박창원 2001:179)

라 전남방언의 언어변화 방향을 예측해 나가는 데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 여긴다.

2. 어간 ‘심-’의 형태소 분석

영암 지역어에서 ‘植’을 뜻하는 어간은 다양하게 실현되어 어간 ‘심-’으로 단일화한 표준어와 비교된다.⁸⁾ 이는 역사적 어간에서 다른 방향으로 언어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간 ‘심-’의 변이형

- ㄱ. [송군다, 송굴라고, 송구로, 송겨, 송구고] /송구-/
- ㄴ. [싱군다, 싱굴라고, 싱구로, 싱겨, 싱구고] /싱구-/
- ㄷ. [싱긴다, 싱길라고, 싱기로, 싱겨, 싱기고] /싱기-/
- ㄹ. [수문다, 수물라고, 수무로, 수머, 수:꼬] /숨-/
- ㅁ. [수문다, 수물라고, 수무로, 수머, 수무고] /수무-/
- ㅂ. [시문다~심:는다, 시물라고, 시무로, 시머, 심:꼬] /심-/

용언어간의 형태소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교체환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미 ‘-고’와 결합된 각각의 음성형을 분석하면 어간말음이 (1ㄱ~ㄷ)은 모음으로 끝나고 있고, (1ㅂ)은 자음으로 끝나고 있다.⁹⁾ (1ㄹ, ㅁ)은 모

8) 역사적으로 ‘植’을 뜻하는 어간은 ‘심-의시므-’로 교체를 하는 불규칙 어간이었다. 어간 ‘심-’의 단일화는 광충구(1994)를 참고할 수 있다.

9) 어간말음이 모음으로 끝나는 (1ㄱ~ㄷ)의 경우 어미 ‘-어’와 결합하는 음성형에서 (1ㄱ, ㄴ)은 [X겨]로 (1ㄷ)은 [X겨]으로 실현되었다. (1ㄱ, ㄴ)은 ‘구+어→귀→겨’와 같이 w-반모음화한 후 w-탈락으로 설명하고, (1ㄷ)은 ‘기+어→겨’와 같이 y-반모음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을 때 (1ㅁ)의 음성형 [수머]가 문제로 남는다. 어간 ‘수무-’는 4장의 분포율과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표형으로 쓰인 적이 없는 매우 빈도가 낮은 어간으로, 어간 ‘숨-’에 모음 ‘으’(수므->수무-)가 덧붙어 확장된 어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어간의 확장형은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배주채(1994:75)는 고흥방언을 논하는 과정에서 어간말음으로 ‘ㅂ,

음어미와 결합에서 동일한 교체양상을 보이지만, 어미 ‘-고’와의 결합에서 [송:꼬](숨-고)와 [수무고](수무-고)로 실현되어 각기 어간의 형태소는 ‘숨-’과 ‘수무-’가 된다.¹⁰⁾

이상의 음운론적 정보를 토대로 어간의 형태소를 도출해 내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승구-, 싱구-, 싱기-, 수무-’와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숨-, 심-’ 등이 된다. 언어는 고정불변하지 않고 늘 역동적인 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다양한 변이형의 출현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언어공동체에서 특정한 어간이 동일 의미에 의해 (1)처럼 쓰인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전통방언학적인 방법론에 사회언어학적 방법론을 가미하여 언어집단 내에서 동일 의미로 다양한 실현양상을 보인 요인은 무엇인지 나아가 영암 지역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한다.

ε, π’과 ‘ㄹ’을 갖는 어간 ‘뺨-, 쉬-, 쥐-, 불-, 닭-, 싹-, 짚-, 짚-’ 등은 ‘으’확대형과 공존한다고 하였다.

한편 (1ㄷ, ㅁ)은 형태소 분석에서 어간말음이 자음으로 끝나고 있다. 그런데 음성형을 보면 어미 ‘-은/는다’의 결합에서 마치 어간말음이 모음인 것처럼 ‘-은다’가 결합하고 있다. 이 경우 복수 기저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어미의 문체에 해당한다. 전남방언은 어미 ‘-은/는다’ 사용에서 음운론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사어간 ‘먹-, 빚-, 잡-, 짓-’ 등은 ‘먹는다, 빚는다, 잡는다, 짓는다’가 되어야 하지만 전남방언은 [머근다, 비슨다, 자분다, 지슨다]와 같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어미 ‘-은/는다’의 실현양상은 개별방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배주채(1994), 이상신(2008), 하신영(2010), 김정표(2013), 이진숙(2013), 이진숙(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0) 따라서 (1ㄷ)의 모음어미와 결합한 음성형은 ‘숨-운다, 숨-올라고, 숨-우로, 숨-어’로 분석된다. 이 때 음성형 [수무X]의 둘째 음절 모음 ‘우’는 어미초 ‘으’가 앞에 놓인 어간말 자음 ‘ㅁ’의 영향을 받아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어간 ‘심-’의 사회적 변인에 따른 실현양상

영암 지역어에서 ‘植’을 뜻하는 어간은 앞서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이 장에서는 변이형이 사회적 변인인 세대별·성별 요인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지역별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각 세대와 성별의 언어사용에서 하나의 변이형을 선택하여 쓰는가 하면 ‘(1ㄱ)과(1ㄷ)·(1ㄱ)과(1ㅁ)·(1ㄴ)과(1ㄹ)·(1ㄷ)과(1ㄹ)’ 등 둘 이상의 변이형이 공존하여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도가 높은 어간을 대표 변이형(이하 ‘대표형’이라 함)으로 정하여 공존하는 변이형과 구분 짓고자 한다. 그리고 어간 앞에는 ‘1승구-, 2싱구-, 3싱기-, 4숨- 5수무-, 6심-’과 같이 번호를 붙였다. (2)의 표에서 단독으로 쓰인 숫자는 대표형을 의미하고, 괄호는 대표형과 공존하여 쓰는 변이형을 뜻한다.¹¹⁾

(2) 지역별 실현양상

ㄱ. 영암읍

세대	성	1승구-	2싱구-	3싱기-	4숨-	5수무-	6심-
70대 이상	남	(6-1)			(6-1)		2
	여	2		(1-2)			
60대 이하	남				2		(4-1)
	여	2					
계		4 (6-1)		(1-2)	2 (6-1)		2 (4-1)

(2ㄱ)의 영암읍 세대별·성별에 나타난 대표형을 모아보면 어간 ‘승구-, 숨-, 심-’이 된다. 이들 어간은 세대별·성별에서 대표형으로 쓰이면서 공존하여

11) (2ㄱ)의 영암읍 70대 이상 남성을 예로 들었을 때 ‘1승구-’는 (6-1), ‘4숨-’은 (6-1), ‘6심-’은 2로 되어 있다. 두 제보자는 어간 ‘6심-’을 대표형으로 사용하면서 한 명은 ‘1승구-’가, 다른 한 명은 ‘4숨-’이 공존형이 된다. 즉 괄호 안 이음표 (-)에 선행하는 숫자는 대표형이 되고 후행 숫자는 제보자를 나타낸다.

쓰이기도 한다. 영암읍에서 이들 어간이 갖는 특징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남성 화자는 어간 ‘심-’을 대표형으로, 여성 화자는 어간 ‘송구-’를 대표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60대 이하에서 남성 화자는 어간 ‘숨-’을 여성 화자는 어간 ‘송구-’를 대표형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영암읍에서 어간 ‘송구-’는 여성어에 해당한다면 어간 ‘심-, 숨-’은 남성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히 남성어는 세대 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심-’은 70대 이상을 중심으로, ‘숨-’은 60대 이하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ㄴ. 시종면

세대	성	1송구-	2싱구-	3싱기-	4숨-	5수무-	6심-
70대 이상	남	1					1
	여	2					
60대 이하	남	1			1		
	여	1	(6-1)		(1-1)		1
계		5	(6-1)		1 (1-1)		2

(ㄴ)의 시종면 세대별·성별에서 보인 대표형은 어간 ‘송구-, 숨-, 심-’이다. 그러면서 어간 ‘싱구-, 숨-’이 공존하고 있다. 시종면에서 이들 어간이 갖는 특징을 보면 ‘송구-’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우세를 보이고 있다. 어간 ‘심-’은 70대 이상 남성과 60대 이하 여성에서, ‘숨-’은 60대 이하 남성에만 쓰이고 있다. 다만 60대 이하의 여성 화자들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대표형이 ‘심-’인 화자는 ‘싱구-’가 공존형이고, 대표형이 ‘송구-’인 화자는 ‘숨-’이 공존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존형 사용에서 대표형 형태와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다.

ㄷ. 도포면

세대	성	1송구-	2싱구-	3싱기-	4숨-	5수무-	6심-
70대 이상	남						2
	여	2					
60대 이하	남	1			1		
	여	(4-1)		(6-1)	1		1
계		3 (4-1)		(6-1)	2		3

(2ㄷ)의 도포면 세대별·성별에서 보인 대표형은 어간 ‘송구-, 숨-, 심-’이고, 어간 ‘송구-, 싱기-’가 공존하고 있다. 도포면에서 이들 어간이 갖는 특징을 보면 ‘송구-’는 70대 이상 여성 화자에서만 쓰이고 있다. ‘심-’은 70대 이상 남성 화자와 60대 이하 여성 화자에서 쓰이고 있고, ‘숨-’은 60대 이하에서만 나타난다. 도포면의 70대 이상은 대표형만을 가지고 있으며 성별 층위에서도 여성어와 남성어는 뚜렷이 구분된다. 그에 비해 60대 이하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60대 이하 여성 화자는 대표형 ‘숨-, 심-’을 사용하면서 어간 ‘송구-, 싱기-’가 공존하는데 어간의 첫음절 선택 양상이 (2ㄴ)의 시종면 60대 이하 여성 화자와 동일하다.

ㄹ. 신북면

세대	성	1송구-	2싱구-	3싱기-	4숨-	5수무-	6심-
70대 이상	남						2
	여	2			(1-1)		
60대 이하	남				2		(4-1)
	여				2		
계		2			4 (1-1)		2 (4-1)

(2ㄹ)의 신북면 세대별·성별에서 보인 대표형은 어간 ‘송구-, 숨-, 심-’이

고, 어간 ‘숨-, 심-’이 공존하고 있다. 신북면에서 이들 어간이 갖는 특징을 보면 ‘송구-’는 70대 이상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쓰이고 있고, ‘심-’은 70대 이상 남성 화장에서만 나타난다. 즉 70대 이상의 경우 앞서 살핀 도포면과 같이 여성어와 남성어의 구분이 뚜렷하다. 반면 60대 이하의 경우 성별 층위에서 어간 ‘숨-’을 대표형으로 사용하는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북면은 세대 간의 차이와 함께 70대 이상에서 성별의 차이를 갖는다 하겠다.

□. 금정면

세대	성	1송구-	2싱구-	3싱기-	4숨-	5수무-	6심-
70대 이상	남						2
	여						2
60대 이하	남						2
	여						2
계							8

(2□)의 금정면은 세대별·성별에서 대표형이 어간 ‘심-’이다. 사회적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단일한 형태로 일치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존형도 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금정면에서도 영암의 다른 하위지역과 같이 70대 이상과 60대 이하 여성 화자에서 어간 ‘송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보자들은 어간 ‘송구-’를 ‘옛날에 썼’던 말, 즉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어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금정면은 영암의 여타 지역에 비해 전 세대가 표준어화 되었다 할 수 있다.

▣. 서호면

세대	성	1송구-	2싱구-	3싱기-	4숨-	5송구-	6심-
70대 이상	남	(6-1)					2
	여	2					
60대	남				2		

이하	여		(6-1)		(6-1)		2
계		2	(6-1)	(6-1)	2	(6-1)	4

(2ㄱ)의 서호면 세대별·성별에서 보인 대표형은 어간 ‘송구-, 숨-, 심-’이고 세대별·성별에 따라 어간 ‘송구-, 싱구-, 숨-’이 공존하고 있다. 서호면에서 이들 어간이 갖는 특징을 보면 어간 ‘송구-’는 70대 이상 여성 화자에서, 어간 ‘심-’은 70대 이상 남성 화자와 60대 이하 여성화자에서, 어간 ‘숨-’은 60대 이하 남성 화자에서 우세를 보여 세대와 성별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호면의 경우 ‘植’을 뜻하는 어간의 표준어화는 70대 이상의 남성 화자와 60대 이하의 여성 화자에서 일어났다. 특히 60대 이하 남성 화자는 어간 ‘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60대 이하에서 보이는 성별의 차이는 농촌사회의 통념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¹²⁾

ㄷ. 군서면

세대	성	1송구-	2싱구-	3싱기-	4숨-	5수무-	6심-
70대 이상	남	1 (6-1)					1
	여	2					
60대 이하	남				2		
	여		(6-1)				2
계		3 (6-1)	(6-1)		2		3

(2ㄷ)의 군서면 세대별·성별에서 보인 대표형은 어간 ‘송구-, 숨-, 심-’이

12)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에 있어서 농촌사회는 방언은 주로 여성 화자에서 쓰인다면 표준어는 남성 화자에서 쓰인다. 그런데 60대 이하 세대로 내려오면 그러한 농촌사회 통념이 깨져 나타나고 있다.

고 어간 ‘송구-, 싱구-’가 공존하고 있다. 군서면에서 이들 어간이 갖는 특징을 보면 ‘송구-’는 70대 이상에서만 쓰이고 있고, ‘심-’은 일부 70대 이상 남성 화자와 60대 이하 여성 화자에서 쓰이고 있다. 어간 ‘숨-’은 주로 60대 이하 남성 화자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60대 이하에서 보인 어간 ‘숨-, 심-’은 여성어와 남성어로 뚜렷한 양상을 보여 성별 층위에서 차이를 갖는다 하겠다.

○. 덕진면

세대	성	1송구-	2싱구-	3싱기-	4숨-	5수무-	6심-
70대 이상	남	1			(1-1)		1
	여	2					
60대 이하	남				2		
	여	1 (6-1)			(1-1)	(1-1)	1
계		4 (6-1)			2 (1-2)	(1-1)	2

(20)의 덕진면 세대별·성별에서 보인 대표형은 어간 ‘송구-, 숨-, 심-’이고 어간 ‘송구-, 숨-, 수무-’가 공존하고 있다. 덕진면에서 이들 어간은 세대별·성별에서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어간 ‘송구-’는 세대를 아우르며 여성 화자에서 우세를 보이지만, 어간 ‘숨-’은 60대 이하의 남성 화자에서 사용됨으로써 세대와 성별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겠다.¹³⁾

13) 한편 덕진면은 60대 이하 여성화자에서 공존형으로 ‘수무-’가 발견된다. 이 화자는 대표형으로 ‘송구-’를 주로 사용하면서 어간 ‘숨-’을 공존형으로 사용하는 동일 화자이다. 어간 ‘수무-’는 어간 ‘숨-’에 모음 ‘으’가 덧붙임으로서 확장된 것이라 하겠다.

ㄱ. 학산면

세대	성	1송구-	2송구-	3싱기-	4숨-	5수무-	6심-
70대 이상	남		(6-2)				2
	여		2				
60대 이하	남				2		(4-2)
	여		1				1
계			3 (6-2)		2		3 (4-2)

(2ㄱ)의 학산면 세대별·성별에서 보인 대표형은 어간 ‘싱구-, 숨-, 심-’이고 어간 ‘싱구-, 심-’이 공존하고 있다. 학산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어간 ‘싱구-’가 대표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간 ‘싱구-’는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고, 어간 ‘숨-, 심-’은 남성 화자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간 ‘심-’은 남성 화자에서 세대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실현양상은 영암의 다른 면과 동일하다 하겠다. 그러나 표준어화 하지 않고 방언형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여성 화자는 어간 ‘송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학산면의 어간 ‘싱구-’는 매우 이례적이다.

ㄴ. 미암면

세대	성	1송구-	2송구-	3싱기-	4숨-	5수무-	6심-
70대 이상	남						2
	여						2
60대 이하	남						2
	여						2
계							8

(2ㄴ)의 미암면 세대별·성별에서 보인 대표형은 어간 ‘심-’이다. 미암면은 전 세대가 어간 ‘심-’으로 표준어화 되었다. 이는 앞서 살핀 금정면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야지대로 묶인 영암의 다른 지역과 언어차이를 보

이며 언어단절을 이루고 있다.¹⁴⁾

4. 어간 ‘심-’의 방언학적 분석

이 장에서는 3장의 사회적 변인에서 확인된 대표형을 분포율, 막대그래프, 언어지도로 나타내어 세대별·성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그것이 언어변이와 어떤 의미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세대별·성별에 의한 분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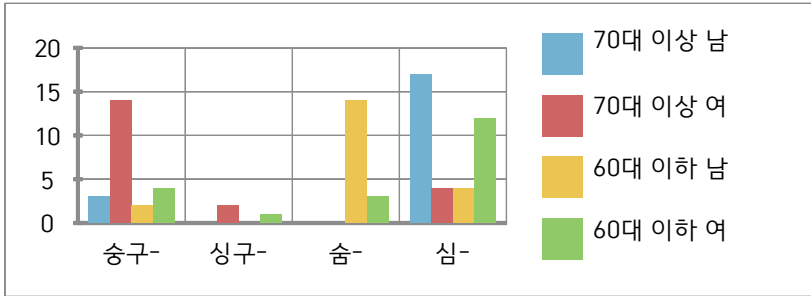
세대	성	송구-	싱구-	싱기-	숨-	수무-	심-
70대 이상	남	3					17
	여	14	2				4
60대 이하	남	2			14		4
	여	4	1		3		12
분포율(%)		28.75	3.75	0	21.25	0	46.25

영암 지역어는 (1)의 음성실현에서 확인하였듯이 변이형 ‘송구-, 싱구-, 싱기-, 숨-, 수무-, 심-’ 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변이형들이 모두 대표형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2) 실현양상을 보면 화자 개개 구성원에서 변이형은 대표형 또는 공존형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분포율의 숫자들은 영암지역 내 구성원들의 변이형 사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겠다. 분포율에서 ‘0’을 제외한 숫자를 갖는 어간은 세대별·성별에서 대표형으로 쓰였음을 의미한다. ‘0’을 갖는 어간은 단 한 차례도 대표형으로 쓰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소멸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대표 변

14) 이상신(2008)에서는 미암면·서호면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논문은 어간 ‘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형은 분포율에서 ‘심->송구->숨->싱구-’ 순을 보임에 따라 21세기 영암 지역어의 사회적 변인인 세대별·성별 요인에서 가장 높은 실현율을 보이는 변이형은 어간 ‘심-’이라 할 것이다.

(4) 세대별·성별 요인에 따른 막대그래프



(4)는 (3)의 분포율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는 어간 ‘심-’의 변이양상에 대한 사회적 변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각 세대별·성별의 변이형에 대한 선호양상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적 변인의 선호양상은 언어변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앞으로 영암 지역어에서 어떤 변이형이 주요 어간으로 쓰일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어간 ‘심-’과 ‘송구-’, ‘숨-’ 등은 영암 지역어에서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어간은 특정 세대와 성별에 집중되어 있다. 어간 ‘심-’은 70대 이상 남성 화자와 60대 이하 여성 화자에서 높은 지표를 보이고, 어간 ‘송구-’는 70대 이상 여성 화자에서 높은 지표를 보이며, 어간 ‘숨-’은 60대 이하 남성 화자에서 높은 지표를 보인다. 즉 70대 이상 남성 화자와 60대 이하 여성 화자는 규범적 성격이 강한 표준어를 선호한다면, 70대 이상 여성 화자와 60대 이하 남성 화자는 지역적 성격이 반영된 토속어를 선호하고 있다.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한 공동체 언어에서 방언과 표준어가 공존하는 상황인데 이처럼 동일 세대에서 성별이 일치되지 않고 지표의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표준어 사용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모두 농사가 업이기 때문에 직업과는 무관하다. 사회언어학에서 표준어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¹⁵⁾ 60대 이하 여성 화자의 표준어 선호양상은 사회적 가치에서 비롯된 경향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70대 이상 남성 화자의 표준어 선호 양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70대 이상 남성 화자의 표준어 선호양상은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생활양상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이 살아온 시대의 풍속·습관 등은 대외적인 활동에서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다.¹⁶⁾ 대외적인 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대개 규범적 성격이 강한 표준어가 사용된다.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적인 활동이 많았던 70대 이상의 남성은 여성보다 표준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더 많았을 것이고, 이러한 언어적 상황이 표준어 사용 빈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사료된다. 따라서 70대 이상 세대에서 보인 성별 대립은 60대 이하 세대와 다르게 전통적인 사회·문화 구조에 의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70대 이상 세대의 변이양상은 도시 지향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남성 화자는 주어진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비표준어→표준어’로 바꾸게 된 것이다.¹⁷⁾

15) 성별에 따른 표준어 선호도와 보수성은 이익섭(1984:198~200)과 강현석 외(2014:140~147)을 참고할 수 있다.

16) 농촌사회에서 대외적인 활동의 대표적인 한 예로 마을 이장의 활동을 들 수 있다. 글쓴이의 조사에 의하면 이장의 성별 비율은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70대 이상의 경우 남성이 이장을 도맡아 왔으며, 여성 이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60대로 오면서 여성 이장이 눈에 띄게 등장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70대 이상의 경우 여성은 대부분 무학이라면 남성은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가 많다. 반면 60대 이하에서는 남녀 대부분 중졸 이상이다. 따라서 70대 이상의 여성은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 할 것이다.

17) 일반적으로 언어의 보수성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70대 이상의 남성 화자인 경우 규범적 언어를 더 선호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에 더 중요성을 두었다면, 여성 화자는 토속어를 지키려는 보수성이 강하게 작용한 때

70대 이상의 성별 요인은 한편으로 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60대 이하에서 모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60대 이하 세대는 70대 이상 세대와 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지만 변모한 농촌사회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60대 이하 남성 화자에서 높은 지표를 보인 어간 ‘숨-’의 출현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방언자료집 VI』(1991)을 참고하면 영암 지역어에서 어간 ‘숨-’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4)의 막대그래프를 보면 어간 ‘숨-’은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속어 ‘숨구-’와 표준어 ‘심-’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생겨났을 가능성도 짐작케 한다. 어간 ‘숨-’이 혼효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토속어이기보다 개신형에 속한다 할 것이다. 한 세기가 지난 후 등장한 어간 ‘숨-’은 60대 이하 남성 화자가 개신자임에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어간이 혼효에 의한 개신형인지 확신을 가지려면 좀 더 정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¹⁸⁾ 다만 이 글은 언어변화의 방향 예측이라는 연구목적에 맞춰 자료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영암 지역어에서 어간 ‘숨-’의 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영암 지역어에서 보인 세대별·성별 요인에 의한 특정 변이형 사용은 직업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작용하였다기보다는 생활양식이 도시화된 농촌사회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정보에서 비롯된 언어 인식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편 (4)의 막대그래프는 성별 차이뿐 아니라 세대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70대 이상에서는 주로 어간 ‘숨구-, 심-’이 사용되었고, 60대

문이라 할 것이다.

18) 어간 ‘숨-’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언자료집 VI』(1991)의 전남 ‘장성’에서 유일하게 확인된다. 그런데 『한국 언어 지도집』(1993)을 토대로 하고 있는 곽충구(1994)는 장성에서 ‘숨구-의 숨구-’ 두 개의 어간이 교체 환경에서 겹치지 않고 실현된다 하였다. 위 자료집을 참고하면 20세기 전남방언에서 어간 ‘숨-’은 장성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어간 ‘숨-’이 세력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소멸되었다면 어간 ‘숨-’은 혼효형일 가능성이 크다. 영암은 개신의 진원지가 되고 60대 이후 남성 화자는 개신자가 된다. 그러나 나주평야를 거치면서 남쪽으로 전파된 것이라면 그 설명은 달라진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어간 ‘숨-, 심-’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영암 지역어는 세대교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檀’을 뜻하는 어간은 ‘숨-, 심-’이 될 것이며 이들 어간은 한동안 성별의 차이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언어지도



(5)의 언어지도는 (2)의 지역별 실현양상과 (3)의 분포율을 반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3)의 분포율에서 대표형은 ‘송구-, 싱구-, 숨-, 심-’ 등이었다. 이들 대표형은 사회적 변인인 세대별·성별의 실현양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호 가로선은 어간 ‘송구-, 심-, 숨-’이 대표형으로 쓰이는 지역이다. 기호 사선은 어간 ‘싱구-심-, 숨-’이 대표형으로 쓰이는 지역으로 가로선과 직선 사이에 분포해 있다. 기호 직선은 어간 ‘심-’을 쓰는 지역으로 영암의 양 극단에 분포한다. 직선은 금정면·미암면이 되고, 사선은 학산면, 가로선은 나머지 지역이 된다. 즉 이 언어지도는 (2)의 실현양상이 영암의 지리적·지역적 특징과 무관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암은 평지와 산악지대를 아우르고 있다. 영산강 하류의 드넓은 곡창지대가 펼쳐진 평야지대가 있는가 하면 동·서·남단은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동쪽에는 오봉산·백룡산·활성산이 하나의 산줄기를 이루며 자리 잡

고 있다. 오봉산은 신북면과 금정면 사이에, 백룡산은 덕진면과 금정면 사이에, 활성산은 영암읍과 금정면 사이에 위치한다. 즉 신북면·덕진면·영암읍은 오봉산·백룡산·활성산을 병풍삼아 너른 별관을 이루다면, 금정면은 영암의 그 너른 별관을 내려다보는 418m의 백룡산줄기 너머에 있다. 금정면은 이러한 지형적 특징에 의해 영암 동쪽의 언어섬이 되었다 할 것이다.

영암의 동남쪽에는 807m의 월출산이 있고 서쪽에는 그리 높지 않은 은적산이 있다. 은적산은 월출산 자락을 이으며, 그 사이를 가로 지르며 흐르다 만나는 서호강 끝에서 둘레가 4Km 되는 십리방죽(학과제일 저수지)과 함께 영암의 서남쪽에 위치한 지역을 경계 짓고 있다. 그 월출산과 은적산 너머에 학산면·미암면이 있다. 특히 미암면은 목포와 근접해 생활권이 목포가 된다. 여기에 지형적 조건이 더해지면서 영암의 여타 지역과 단절을 이루게 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학산면은 언어지도에서 전이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학산면의 70대 이상 여성 화자에서 두 변이형이 접촉한 현상을 보인 것이다. 어간 ‘싱구-’를 대표 변이형으로 삼은 지역은 학산면의 여성 화자뿐이다. 어간 ‘싱구-’는 서호면과 미암면 70대 이상 여성 화자의 대표형 ‘슁구-’와 ‘심-’이 뒤섞이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공존형으로 ‘싱구-’를 갖는 다른 지역 층위의 대표형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 (2Lㅁㅅ)의 60대 이하 여성 화자는 어간 ‘싱구-’를 공존형으로 사용하는데 이들은 모두 어간 ‘심-’이 대표형이다. 그들은 마을 어른들이 ‘싱구-’를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2Lㅁㅅ) 지역의 70대 이상 여성 화자는 어간 ‘슁구-’가 강제인 지역이다.¹⁹⁾ 즉 어간 ‘슁구-’의 첫 음절모음에 대한 청취 불분명과 어간 ‘심-’이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변이형 ‘싱구-’ 형태가 만들어졌다 할 것이다.

19) 이러한 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덕진면의 60대 부부 제보자를 언급하고자 한다. 여성 화자인 아내는 남성 화자인 남편이 어간 ‘심-’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슁-’으로 정정해 준 것이다. 특히 이 남편은 요즘 사람들은 ‘슁-’을 더 많은 쓴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이 부부는 제보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쓰는 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5. 결론

영암지역 화자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어인 어간 ‘심-’은 사전적 정의에서도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 속에 묻는’이라 되어 있듯이, 농경문화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모종과 관련된 농작물의 구체적인 작업 상황을 배경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영암 지역어에서 어간 ‘심-’은 ‘송구-, 싱구-, 싱기-, 숲-, 수무-, 심-’ 등의 변이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변이형은 표준어의 관점에서 보면 어간 ‘심-’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표준어에 해당한다. 표준어는 규범적인 언어라면 비표준어는 지역적 성격이 반영된 보수적인 언어이다. 한 언어공동체에서 이처럼 다양한 변이형의 출현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들 변이형 간 차이는 없는지 방언학적 방법에 사회언어학적인 방법을 가미하여 논의되었다.

사회적 변인인 세대별·성별에 따른 지역별 실현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포율·막대그래프·언어지도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무엇보다 영암 지역어의 사회적 변인인 세대별·성별의 언어 실태양상을 한눈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였다. 제보자들은 다양한 변이형 사용에서 하나의 변이형을 선택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변이형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공존형은 형태상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포율에서 ‘심->송구->숲->싱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어간 ‘싱구-’는 특정한 지역 특정한 세대에 의해 그 명맥이 유지되어 그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포율에서 ‘0’을 갖는 어간 ‘싱기-, 수무-’는 소멸을 암시하고 있었다. 막대그래프에서는 세대 간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성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70대 이상 세대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간은 ‘송구-, 심-’이었는데 여성 화자는 어간 ‘송구-’를 남성 화자는 어간 ‘심-’을 사용하였다. 60대 이하 세대에서는 어간 ‘숲-, 심-’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여성 화자는 어간 ‘심-’을 남성 화자는 어간 ‘숲-’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세대·성별의 차이를 통하여 앞으로 영암 지역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 것인지 그 흐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강현석 외(2014),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콘텐츠.
- 강희숙(1993), 「장흥지역어의 불규칙활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p, t, s 불규칙활용을 중 심으로-」, 『인문과학연구』15, 조선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35~52면.
- 강희숙(1994), 『음운 변이 및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남 장흥 방언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곽충구(1994), 「계합 내에서의 단일화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 『박갑수 선생 화갑 기념 논문집』, 국어학연구, 549~582면.
- 김경표(2013),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주채(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상신(2008), 『전남 영암지역어의 공시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 이진숙(2013), 『고흥지역어와 진도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진숙(2014), 「전남 함평지역어의 공시 형태론」, 『방언학』19, 한국방언학회, 41~65면.
- 이진숙(2015), 『영암 지역의 언어와 문화』, 역락.
- 하신영(2010), 『전남 곡성지역어와 경남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방언자료집-전라남도편』.

【Abstracts】

A Dialectology Study on the Pleonastic Stem ‘sim-’(植)

-Focusing on the regional dialect of Yeongam-

Lee Jin-sook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pect of realization of a pleonastic stem ‘sim-’(植) which is used in the rural societies with less population movement, and explain it in a dialectology way. The foregoing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by generation·gender that are social variables in the use of language among community members and examine from dialectology point of view how it is related with linguistic variation.

Historically, stem that means ‘植’ was an irregular stem that changes to ‘sik-^osimu-’, but was simplified as the stem ‘sim-’ in contemporary Korean. Unlike standard language, however, it was shown as diverse varieties such as ‘sunggu-, singgu-, singgi-, sumu-, sum-, sim-’ in the regional dialect of Yeongam. This study aimed to predict a stream which variations will be used as main stem in the regional dialect of Yeongam in the future by considering why so many variations are used for a same meaning, and what are the variations. Variations of the stem ‘sim-’ are in the regional dialect of Yeongam showing a difference in factors by generation·gender.

In generations, the stem ‘sunggu-, sim-’ are mainly used in their 70s or older, whereas the stem ‘sim-, sum-’ are used less than in their 60s. In genders, the female speakers in their 70s or older use the stem ‘sunggu-’, but male speakers use the stem ‘sim-’. As for less than in

their 60s, female speakers use the stem ‘sim-’, whereas male speakers use the stem ‘sum-’. Therefore, the stem that means ‘植’ will become ‘sim-, sum-’ and those stem will have a difference by gender in the regional dialect of Yeongam after a shift in generations is made entirely.

Keywords: regional dialect of Yeongam, social variables, factors by generation·gender, variations, stem ‘sim-’

이 논문은 2017년 10월 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11월 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11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